

사회복지사와 타분야 원조전문직 간 대중이미지 비교연구*

강철희

(연세대학교)

최명민

(백석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이미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면서 향후 사회복지전문직이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1,156명을 대상으로 16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어의미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상담심리사 및 목회상담가 등의 5개 원조전문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비교차원에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5개 원조전문직 중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문직으로 나타났다. 대응분석을 활용했을 때, 사회복지사의 대표적 이미지는 실제성과 편안함이라는 이미지와 가장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에 논의되어 온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이미지를 놓고 분산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사회복지사와 다른 원조전문가들 중 상담심리사가 사회복지사와 변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미지에만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MANOVA를 통해 분석했을 때, 성별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어온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학문내적인 차원, 교육 차원, 실천현장 차원, 대사회적 홍보 및 연구 차원에서 다각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주제어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원조전문직, 대중이미지, 인식, 전문성

* 이 논문은 교육인적자원부의 BK 21 연구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서론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이 직업들 중에서 사회복지학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부각되는 직업군인 원조전문직(helping professions)의 현황에 대한 이해는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직인 사회복지사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현재 원조전문직에 속하는 다양한 전문직은 저마다 자기 전문직의 필요성 및 전문성의 속성을 부각시키면서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 보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서구로부터 도입된 다양한 원조전문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대인원조전문직들은 각 직업의 사회적 필요성과 우월성 등을 보이기 위해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대인서비스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문제의 출현 등에 따라 대인서비스 영역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각 원조전문직은 자기 영역의 차별적 속성 부각 및 자기 영역의 공고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조전문직의 하나로서 우리 사회에서도 고유의 역할을 확립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 및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향과 노력에 비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중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에 관해서는 연구되어진 바가 없다. 아울러 다른 원조전문직들과의 비교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연구되어진 바가 없다. 실제로 사회복지학계나 현장 등에서는 오랫동안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의 부정확한 인식 및 대중의 이해 부족을 논해왔지만,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노력은 부재하였던 것이다. 즉 원조전문직의 발전을 위해서 각 직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나, 그러한 노력이 진행되지 못한 결과 이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교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사회복지직의 객관적 현실을 파악하면서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노력은 아직까지 진행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대적인 이해가 부재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사업법(1986)에 따라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으로 배출된 인력은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5만 372명에 달하고 있을 만큼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의 규모는 양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김범수·허준수·이기영·최명민, 2006). 절대적인 규모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규모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직업 내적으로도 자선사업가 혹은 자원봉사자의 이미지로부터 탈피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는 원조전문가의 이미지를 실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 등의 방법과 함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과거적 이해 및 지향이 존재하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기대되는 바람직한 인식을 갖고 있는 등 다

양하고도 복합적인 이미지들이 공존하고 있다. 한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은 이러한 복합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왕따·가정형편 고민...사회복지사가 해결사...전문성 십분활용'이라는 기사(2006.2.16. 중앙일보)를 내는가 하면, 한 편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일하면서 칭찬받고 보람도 얻는 직업...봉사활동...착한 마음씨'라는 표현으로 기사화 하는 것(2006.3.9. 중앙일보)이 관찰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선거 즈음에는 '사회복지사, 지방의원 등용문'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한다(2006. 6. 14. 중앙일보). 양적인 규모의 확장과 더불어 이제 질적인 수준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이처럼 다양한 이미지가 혼재되어져 있는 상황 그 자체는 이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식현황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대인원조전문직은 그 용어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 즉 대중을 상대로 존재하는 직군이다. 따라서 원조전문직에 대해 일반인이 갖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는 작업은 질적인 차원에서 원조전문직의 직업 속성을 강화하고 직업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과제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 작업이다. 따라서 심리학 등의 영역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이미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학문과 관련된 원조전문직의 발전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원조전문직의 속성에 대한 대중 홍보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Benjamin, 1986; Webb and Speer, 1986; Schindler, Berren, Hannah, Beigel, and Santiago, 1987; Warner and Bradley, 1991; Humphreys, 1996; Farberman, 1997; 유성경, 2005 등). 최근에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서구를 중심으로 대중의 인식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원조전문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과제를 찾으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Kaufman and Raymond, 1995-1996. LeCroy and Stinson, 2004. Gibelman, 2004 등).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전술하였듯이, 사회복지사의 양적인 성장에 걸맞은 질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대중의 인식 현황을 파악하면서 사회복지사 이미지 구축 관련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여타 대인전문직에 대해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비교의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조사하면서 객관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원조전문직이라 평가되는 정신과 의사 및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유사 영역에서 일정 부분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주요 원조전문직이라 평가되는 상담심리사 및 목회상담사 등과의 비교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해 본 연구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1,156명을 대상으로 해서 16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어의미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5개의 원조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와 인접원조전문직 이미지와의 차별성 및 유사성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본 연구는 대중 이미지를 통해 보았을 때, 사회복지직에 요구되는 내재적 질적 향상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중 이미지 제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후속 논의가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이끄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선행연구 정리 및 검토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외에 타 전문직들을 비교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선행연구의 검토 대상으로서 타 영역에서 이뤄져온 원조전문직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결과와 사회복지사에 초점을 둔 연구 결과 그리고 관련 연구방법들에 관해 정리 및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타분야 원조전문직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그동안 자기 전문직이 대 사회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온 영역은 심리학 분야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심리학회(APA)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각 대인 전문가에 대한 이미지 연구를 수행해왔다. 심리학 분야에서 일반인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온 데에는 심리학자의 역할에 대한 위기의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Humphreys(1996)는 비용제한적인 보건 전략들이 채택되면서, 그동안 대인상담 영역의 주요 기능을 담당해온 박사급의 임상심리사들이 사회복지사 및 석사급 상담가들의 부상으로 점차 그 기능이 쇠퇴하는 상황임을 지적한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비용 요소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임상심리학자들이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여 사회복지사나 석사급 상담가에 비해 서비스 비용이 더 비싸지만 효과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이들의 역할이 일반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지 못하여 다른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현실인식 역시 이러한 연구의 동인이었다(Webb and Speer, 1986).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단지 고급임상심리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대 사회적으로 임상심리사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홍보와 캠페인을 어떻게 벌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외재적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많은 이유는 전문직의 위상과 이미지가 대중의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Trautt and Bloom, 1982).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임상심리학자, 상담심리학자,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등을 원조전문직,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정신건강분야 종사자로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비교적 차원에서 조사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되게 도출되는 결론 중의 하나는 최근으로 올수록 각 원조전문가들에 대한 일반인의 구분이 모호해져서 이들이 대한 차이인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Farberman(1997)은 심리학회와 어떻게 대중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전문임상심리사와 정신보건사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 대중들은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 한다는 사실을 보고한다. Humphreys(1996)는 미국에서 고급임상심리사

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향점을 가질 것, 사회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참여할 것, 임상적 개입차원의 치료보다는 인간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질 것 등을 제안한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진다면 결국 사회복지사와의 차이는 더욱 모호해질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정신건강관련 전문직들과 관련해서 이 영역에서 각자의 전문 영역이 넓어지고 경계가 희미해져감에 따라, 관련 전문직 간 영역 차이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논의들이 있어왔다(김계현, 1995; 김규수, 1992; 김성희, 1999). 유성경(2005)은 한국 남녀 대학생 572명을 대상으로 정신치료, 심리치료, 상담에 대한 태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낙인에 대한 수용도 외에, 문제해결의 필요성 인정, 문제에 대한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는 전문가들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다. 단, 성별의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세 영역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전문가들에 대한 몇 가지 특징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신과의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원조 전문들에 비해 더 심각한 질병을 다룬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연구에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다(Schindler et al., 1987; Warner and Bradley, 1991; Farberman, 1997; 유성경, 2005). 특히 Farberman(1997)은 일반인들이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심각한 환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는데, 유성경(2005)도 정신치료라는 낙인이 일반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관련된 낙인보다 더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이에 비해 심리학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모호하지만 다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급임상심리사는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가족 문제를 가장 잘 다루는 전문가로 인식되거나(Farberman, 1997), 학자나 연구자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고급임상심리사는 보살핌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Warner and Bradley, 1991). Schindler 등(1987)은 정신과 의사, 고급임상심리사, 일반의사 및 성직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정신과 의사 및 고급임상심리사가 정신보건문제에 좀 더 유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보다는 임상심리사가 좀 더 온정적이고 보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런 인식을 제대로 파악할 때 그 욕구에 걸맞은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타분야에서 진행된 여러 전문직 비교 연구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사회적 공헌도나 가치 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원조직과 관련된 학문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한 Wood 등(1986)은 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을 비교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학의 사회공헌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호주의 정신의학자,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한 Sharpley(1986)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직을 매우 가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직업이고 심리학 기반의 전문가들보다 더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한다. Fall, Levitov, Jennings, 그리고 Eberts(2000)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5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사례를 읽고 각 사례를 잘 다룰 것으로 생각하는 전문가(임상심리학자, 석사급 전문 상담가, 박사급 전문 상담가, 정신과의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하는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조사 결과 5개 사례 모두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장 낮은 순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즉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 관심과 흥미의 수준이나 중요성 및 공헌도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한다.

2) 사회복지사(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타 원조 전문직에서 전문직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를 위해 여러 전문직들을 병렬해 놓고 비교 조사하였다면, 사회복지영역에서 이뤄진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는 여러 전문직을 비교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 단독에 대한 인식조사가 많았다. 사회복지사의 이미지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사가 전문직화 되는 과정이 뚜렷했던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대중이미지와 더불어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진행된 논의 및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이미지 변천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20년대 미국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로서 예외의 바르고 보살핌을 주는 우애방문가, 박애주의자, 천사와 같은 이미지로 묘사되는 경향이 컸다(Kaufman and Raymond, 1995-1996에서 재인용). 그러나 전문직업화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냉정하고 우월하고 간섭하는 조사자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관료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었다(Kadushin, 1978). 즉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이 보고된다(Walkowitz, 1990).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뤄진 조사 및 논의들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직화가 빠르게 진행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을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거나 봉사직과 구분하지 못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많음을 보고한다(Kadushin, 1958; Barlow, 1963).

70년대에 들어서 Condie, Hanson, Lang, Moss, 및 Kane(1978)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다양한 이미지가 공존함을 보여준다. 즉 사회복지사는 요보호자를 일차적으로 돌보며,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고,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친숙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보고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분야로 학교, 병원, 정부조직, 시민조직, 가족상담센터, 교도소 등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로 인해 도움을 요청할 전문직으로는 교회목사 등의 전문종교인, 정신과의사, 일반의사, 고급임상심리사에 이어 단지 6%만이 사회복지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약한 선택의 대상임을 보고한다. 1970년대에는 50년대 및 60년대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필요성 및 이해도가 향상되고는 있으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회복지사가 이해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에 와서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Kaufman과 Raymond (1995-199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활동과 이들이 활동하는 장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사

회복지사에 대한 이미지도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사회복지사와 그들의 활동에 대해 여전히 보다 집중적인 대중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수행된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에 좀 더 긍정적인 진전이 있음이 보고된다. LeCroy와 Stinson(2004)은 39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지식, 신념, 태도를 묻고, 아울러 정신과의사, 고급임상심리사, 상담가, 간호사, 성직자 등의 타 원조 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비교 조사하였는데,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은 사회복지사가 되기까지의 훈련과정, 사회적 대우,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고, 직업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급임상심리사, 정신과의사, 전문상담가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한다. 특히 타 전문직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학대 및 가정폭력과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전문직으로 꼽힘을 보고한다. 그러나 알콜문제, 부부문제, 성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능성이 낮게 평가됨을 보고한다. Gilbelman(2004)은 21세기 들어서서 미국의 미디어, 특히 TV에서 사회복지사를 헌신적이고, 감성적이며, 유능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으나, 다른 원조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훈련이 덜 된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영향이 그리 쉽게 약화되지는 않음을 보고한다. 그는 이런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미디어의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미디어와 접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가 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국내에서는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비교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다양한 학문의 사회복지학과의 비교, 특히 사람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미지를 강철휘(2005)가 연구한 것이 있다. 이 연구에서 타 학문에 비해 사회복지학은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대중 스스로가 생각하는 개인의 지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났으나, 개인적 흥미도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고한다. 사회복지학이 사회복지사의 기반이 되는 학문이긴 하나, 학문의 영역과 실천 전문가의 영역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문직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의 이미지를 확인하는 연구 노력이 국내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미지를 타 전문직과 비교하여 조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전문가에 대한 인식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들에 대한 검토

다음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가에 대한 인식 연구에 사용된 방법들을 인식의 주체, 대상, 인식 측정도구의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방법들을 도출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전문직에 대한 인식 연구의 형태를 정리해 보면, 전문가 스스로에 의한 자기 전문직에 대한 인식(예 : 박종우, 1994 등), 타 전문직에 의한 인식(예 : Cowels and Lefcowitz, 1992 등), 클라이언트에 의한 인식(예 : Kadushin, 1996 등), 그리고 일반대중에 의한 인식(예 : Lecroy and Stinson, 2004 등), 대중매체에 투영된 인식(예 : Tower, 2000 등) 등으로 나뉘질 수 있다. 그 인식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원조전문직의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대중의 인식 파악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특정 학문을 배경으로 하는 원조 전문직에 초점을 두고 그 직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보통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그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접근 방법이고(Kaufman and Raymond, 1995-1996),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인식의 편중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직을 설정하고 이들 전문직 간 상대적 위치를 비교를 하는 방법(Fall, Levitov, Jennings, and Eberts, 2000 등)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에 대한 대중 이미지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전문직간의 상대적 비교 방식을 통해서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보다 많이 선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직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활용되어 온 측정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정도가 활용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어의미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S)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어의미분척도는 대상자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대조적 형용사가 한 쌍을 이루도록 한 후 이를 양 극단으로 나누고 양 극단 사이에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의 척도인데, 대상의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적절한 측정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Warner와 Bradley(1991)에 의해서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태도조사에서도 사용되었고, O'Leary, Page와 Kaczmark(2000)도 다양한 종류의 상담가들에 대한 인식을 비교조사하기 위해 어의미분척도를 사용하였다. 어의미분척도는 평가방법의 단순성이라는 장점과 함께 대중 조사가 용이한 특성을 갖고 있고 다양한 대상에 대한 인식 비교가 가능한 유용성을 갖지만, 상세한 인식 내용을 조사하는 데는 다소의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

둘째로 원조전문직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별도로 준비된 설문지, 즉 초점을 확실하게 갖는 내용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 Kaufman과 Raymond(1995-1996)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식, 사회복지활동영역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등을 묻는 항목의 개발을 통해 일반인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LeCroy와 Stinson(2004)도 Kaufman과 Raymond(1995-1996) 방식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였고, 유성경(2005)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전문직들에 대한 태도를 이러한 방식의 측정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이런 측정방식은 특정 전문직을 대상으로 그 전문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에게 일정 수준의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다소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질적인 판단을 갖게끔 접근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일정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를 다루는 각 전문가들의 유능성을 질적인 방식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 경우에는 보통 그 판단의 이유를 적게 하는 개방질문의 형태를 사용하여 그 인식을 풍부하게 측정해 보고자 한다(Warner와 Bradley, 1991; Farberman, 1997; Fall, Levitov, Jennings, and Eberts, 2000). 이런 방식의 접근은 보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과 판단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대규모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위의 방법들에 대한 정리는 다양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대상이 고려될 수 있고, 다양한 접근 방식과 측정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연구질문 및 연구방법

1) 연구질문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을 다른 네 개의 원조전문직과의 비교 차원에서 파악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미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의 노력이 필요한가를 조사해 보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조전문직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16개의 각 측정항목별로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다른 원조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직과 차별성이 부각되는 원조전문직과 유사성이 많은 원조전문직은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식이 인구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어떤 차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접근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은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질문이다.

첫째,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각 원조전문직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일반인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원조직업 각각은 16개의 형용사 쌍과 관련지을 때 어떠한 이미지와 근접해 있는가?

셋째, 사회복지직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이미지 측면에서 비교해볼 때, 일반인들의 이미지 상에서 사회복지직과 차이를 갖는 원조직 혹은 유사하게 인식되는 원조직은 어떠한 것들인가?

넷째, 사회복지직에 대한 대중 이미지가 인구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 대중이므로 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무작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상자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접근 가능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표본을 구성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 3개교(남고 2, 여고 1)와 실업고 1개교(남녀공학)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학생의 경우 성별과 학과 균형(이과와 문과)을 고려하여 전국의 6개교(서울경기 3, 충청 1, 전라 1, 경상 1)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 전문가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 포함된 전문직과 관련된 학과 및 전공 학생들은 모두 배제하였다.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일반근로직과 사무

직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5개 조직(일반기업 2, 기업연구소 1, 공장 1, 연예기획사 1)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원이 접근 가능한 주부 및 지역주민들(서울경기, 충청, 전라)에게도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자료 구성 시에는 대상자들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지역 등의 다양한 분포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표집방식으로 무작위적인 방법을 활용한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결과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제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표집과정을 통해 조사과정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156명으로서, 일반인 433명(31.7%), 대학생 355명(30.7%), 고등학생 367명(31.7%)이었고, 성별은 남자 660명(57.1%), 여자 496명(42.9%)이었다.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평균연령은 25.33 세로서 표준편차는 10.41세였다.

(2) 조사과정

본 조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었다. 고등학생은 사전 승인을 얻은 해당 학교의 정규수업시간에 담임교사의 관리 하에 집단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대학생 역시 정규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해당 수업의 담당 교수가 설문에 동의한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반인 집단은 대부분 직장에서 집단으로 시행하였으나, 주부 등 개인적으로 접촉한 대상은 개인별로 실행, 수집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이 조사가 학문간 공동연구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특정 전문직에 대한 연구효과(demand characteristics)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설문 목적이나 설문지 자체에 대해 유의할만한 추가질문은 없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의미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S)를 사용하였다. 어의미분척도는 간단한 질문구조로 인해 즉각적인 판단에 의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어 이미지의 왜곡을 줄이고 각 전문가에 대한 반복 답변으로 인한 수고를 덜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전문직에 대한 태도 조사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Webb and Speer, 1986; Warner and Bradley, 1991; O'Leary, Page, and Kaczmark, 2000).

여기에서 활용된 척도는 Osgood, Suci와 Tannenbaum(1957)이 대인전문직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양극성 형용사가 한 쌍으로 구성된 16개 형용사 쌍들이다. 이들 16개 형용사의 쌍들은 다음과 같다. '이해할 수 있는-이해할 수 없는', '수용적인-거부적인', '가치있는-가치없는', '깊은-얕은', '도움이 되는-도움이 안되는', '편안한-긴장되는', '동등한-권위적인', '따뜻한-차가운', '호감가는-호감이 안가는', '실제적인-이론적인', '능동적인-수동적인', '강한-약한', '정직한-정직하지 못한', '낮익은-낯선', '전문적인-상식적인', '노련한-미숙한' 등이다.

이들 16개의 형용사 쌍들은 8단계 Likert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지에서 형용사쌍의 반은 긍정적 표현이, 나머지 반은 부정적 표현이 먼저 제시되도록 구성하였고, 각 전문가들의 순서와 형용사 순서를 무선적으로 배열하여 A형 질문지와 B형 질문지 두 가지로 준비하였다. 또한 이를 실시 때마다 무선적으로 선택, 시행하였다. 전체점수는 16 ~ 1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특성을 나

타내도록 구성하였다.

각 형용사 쌍에 대한 자극단어(stimulus word)인 대인원조전문직으로는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정신과의사, 간호사, 목회상담가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직업들은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원조전문직으로 논의되어 온 대상 직업들이며 동시에 국내에서 활동 중인 직업인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 4개의 직업들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4) 측정도구의 원조전문직군 각 직종별 요인구조

원조전문직에 대한 어의미분척도 요인추출의 기본자료는 각 직종별 16개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통계패키지 SAS의 PROC FACTOR를 사용하였고 공통요인모형에 단일주축분해를 사용했으며, 사전공통분주정치는 다중상관제곱치(SMC), 요인회전은 사각회전(oblimin)을 사용하였다. 각 직종별 요인수효 결정을 위해서 이순목(2000)의 권고에 따라 고유치의 현저한 차이, 누적분산비율, 분산비율 그리고 해석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각 직종별 공통적으로 4개 요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론적 요인구조와 현실자료와의 괴리도 또는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의 방법 중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소프트웨어로는 LISREL 8.52를 사용하였고, 분석자료는 원자료, 모수추정방식은 최대우도법(ML)이었으며, 요인에 척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각 요인분산을 1.0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섯 개의 직업 각각에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았을 때, 각 요인의 문항이 나타내는 내용을 첫 번째 요인은 ‘유용성’, 두 번째 요인은 ‘친숙성’, 세 번째 요인은 ‘신뢰성’, 네 번째 요인은 ‘전문성’으로 명명하였다.

즉 <표 1>에서도 제시되듯이, 원조전문직중의 각 직업별로 요인구조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직업별로 다소의 상이성이 있으나, 동시에 각 직업별로 위에서 언급했던 네 개의 요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통적인 문항들을 갖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각 요인별 공통적으로 포괄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유용성 요인에서는 ‘가치있는’, ‘깊은’, ‘수용적인’, ‘이해할 수 있는’ 등이 포괄되었고, 친숙성 요인에는 ‘동등한’, ‘편안한’, ‘따뜻한’ 등이 포괄되었다. 또한 신뢰성 요인에는 ‘강한’, ‘능동적인’ 등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성 요인의 경우, ‘전문적인’의 문항만이 공통적으로 포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직업별로 요인분석한 결과의 전반적 합치도(overall fit indices)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가 가장 좋게 나타났고, 다른 전문직들도 대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원조전문직군 요인구조

요인명	사회복지사 문항(요인계수)	상담심리사 문항(요인계수)	목회상담가 문항(요인계수)	정신과의사 문항(요인계수)	간호사 문항(요인계수)	
유용성	9.가치있는(0.81) 12.이해할 수 있는(0.76) 11.수용적인(0.76) 10.깊은(0.73) 1.정직한(0.49)	12.이해할 수 있는(0.85) 11.수용적인(0.80) 9.가치있는(0.70) 10.깊은(0.65)	9.가치있는(0.89) 12.이해할 수 있는(0.81) 11.수용적인(0.80) 10.깊은(0.60) 13.호감이 가는(0.50) 1.정직한(0.50) 5.도움이 되는(0.49) 4.낮익은(0.31)	12.이해할 수 있는(0.63) 11.수용적인(0.60) 9.가치있는(0.41) 10.깊은(0.34)	12.이해할 수 있는(0.81) 11.수용적인(0.67) 4.낮익은(0.64) 9.가치있는(0.66) 5.도움이 되는(0.48) 1.정직한(0.46)	
	친숙성	6.동등한(0.63) 7.편안한(0.62) 14.따뜻한(0.47) 16.실제적인(0.42) 13.호감이 가는(0.41) 5.도움이 되는(0.41)	7.편안한(0.73) 6.동등한(0.68) 14.따뜻한(0.57) 13.호감이 가는(0.40) 16.실제적인(0.51) 5.도움이 되는(0.34)	7.편안한(0.66) 6.동등한(0.65) 14.따뜻한(0.38) 16.실제적인(0.29)	7.편안한(0.73) 6.동등한(0.73) 14.따뜻한(0.59) 13.호감이 가는(0.42) 16.실제적인(0.40) 4.낮익은(0.34)	14.따뜻한(0.70) 7.편안한(0.68) 6.동등한(0.59) 13.호감이 가는(0.49)
		신뢰성	2.강한(0.53) 3.능동적인(0.46) 4.낮익은(0.35)	3.능동적인(0.59) 2.강한(0.69) 1.정직한(0.42)	15.노련한(0.64) 3.능동적인(0.62) 2.강한(0.53)	3.능동적인(0.56) 2.강한(0.56) 1.정직한(0.42)
전문성			8.전문적인(0.43) 15.노련한(0.41)	8.전문적인(0.47) 15.노련한(0.34) 4.낮익은(-0.32)	8.전문적인(0.34)	8.전문적인(0.68) 15.노련한(0.59) 5.도움이 되는(0.56)
	전반적합치		$\chi^2_{\text{G}}=586.23(P=0.0)$ RMSEA=0.068 NFI=0.98 NNFI=0.98	$\chi^2_{\text{G}}=1124.78(P=0.0)$ RMSEA=0.10 NFI=0.95	$\chi^2_{\text{G}}=975.38$ RMSEA=0.093 NFI=0.95 NNFI=0.95	$\chi^2_{\text{G}}=1241.39$ RMSEA=0.11 NFI=0.91 NNFI=0.90
		도지수	GFI=0.94 AGFI=0.91	NNFI=0.95 GFI=0.88 AGFI=0.83	GFI=0.89 AGFI=0.86	GFI=0.87 AGFI=0.82

*기울게 표시된 문항은 상이한 요인구조에 속하는 문항임을 나타낸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의 질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들을 활용한다. 먼저 일반인들의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각 원조전문직종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 중심의 기술적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원조전문직 5개 각각과 16개의 형용사 쌍과 관련지을 때 각 직업은 어떠한 이미지와 근접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즉 원조전문직 5개 직종과 일반인들의 지각수준을 나타내는 측정문항 간의 상대적 거리와 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직과 차이를 갖는 원조직 혹은 유사하게 인식되는 원조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참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한 후 타 원조전

문직간의 비교검증 및 주효과분석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인구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보기 위해서, 즉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주효과를 갖는 인구통계학 변수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MANOVA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한 패키지로 LISREL 8.52과 SPSS 등을 활용한다.

5. 분석결과 및 논의

1) 원조전문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요

각 문항별 원조전문직 5개 직종(상담심리사, 상담심리사, 목회상담가, 정신과의사, 간호사)에 대해 대중들이 지각하는 이미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치에 해당하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원조전문직 각 직종과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치(N=1156)

문항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목회상담가	정신과의사	간호사
1. 정직한	5.02 (1.96)	4.86 (1.89)	4.71 (2.14)	4.76 (1.83)	4.67 (1.87)
2. 강한	4.59 (1.72)	4.79 (1.60)	4.57 (1.81)	5.00 (1.84)	4.51 (1.87)
3. 능동적인	4.94 (2.00)	4.78 (1.82)	4.68 (1.92)	4.76 (1.87)	4.32 (1.97)
4. 낮은	4.77 (1.82)	4.48 (1.89)	4.45 (2.10)	4.08 (2.05)	4.87 (2.16)
5. 도움이 되는	5.02 (2.13)	5.00 (1.97)	4.50 (1.93)	4.97 (2.03)	5.07 (2.08)
6. 동등한	5.10 (2.00)	4.81 (1.88)	4.54 (1.97)	4.30 (1.97)	4.75 (1.89)
7. 편안한	5.11 (2.03)	4.75 (1.99)	4.56 (1.87)	4.08 (2.01)	4.54 (2.00)
8. 전문적인	4.63 (1.91)	4.97 (2.13)	4.27 (1.84)	5.24 (2.42)	4.92 (2.02)
9. 가치있는	5.09 (2.18)	5.03 (1.87)	4.62 (1.90)	5.08 (1.99)	5.00 (1.92)
10. 깊은	4.86 (1.85)	4.98 (1.85)	4.75 (1.89)	5.10 (1.99)	4.60 (1.70)
11. 수용적인	5.08 (1.91)	4.99 (1.81)	4.64 (1.99)	4.76 (1.85)	4.82 (1.80)
12. 이해할수 있는	5.03 (1.97)	5.04 (1.83)	4.51 (1.96)	4.92 (1.82)	4.89 (1.83)
13. 호감이 가는	4.93 (1.97)	4.85 (1.78)	4.30 (1.98)	4.42 (1.84)	4.72 (1.93)
14. 따뜻한	5.15 (2.14)	4.91 (1.85)	4.91 (1.95)	4.24 (1.96)	4.71 (1.97)
15. 노련한	4.97 (1.78)	5.01 (1.92)	4.78 (1.85)	5.23 (2.06)	4.82 (1.94)
16. 실제적인	5.06 (2.09)	4.66 (2.03)	4.53 (2.04)	4.25 (2.19)	4.71 (2.11)
계	4.96 (1.97)	4.87 (1.88)	4.58 (1.95)	4.70 (1.98)	4.75 (1.94)

※ 평균(표준편차)

원조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사회복지사의 평균이 4.96으로서 원조전문직 중 가장 높은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담심리사(평균 4.87), 간호사(4.75),

정신과의사(평균 4.70), 목회상담가(평균 4.58)의 순위를 보였다.

대중들이 지각한 원조전문직 이미지 16개 문항 중 사회복지사에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문항으로는 '따뜻한'(평균 5.15), '편안한'(평균 5.11), '동등한'(평균 5.10), '가치있는'(5.09), '수용적인'(평균 5.08), '실체적인'(평균 5.06), '정직한'(5.02), '능동적인'(평균 4.94), '호감이 가는'(평균 4.93) 등으로 16개 문항 중 모두 9문항(5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심리사에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문항으로는 1문항(6.2%)으로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평균 5.04)이었다. 정신과의사에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문항으로는 '전문적인'(평균 5.24), '노련한'(평균 5.23), '깊은'(평균 5.10), '강한'(평균 5.00) 등 총 4문항(25.0%)이었다. 간호사에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문항으로서는 '도움이 되는'(평균 5.07), '낮익은'(평균 4.87) 등 총 2문항(12.5%)이었다. 반면, 목회상담가와 관련해서는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원조전문직 각 직종에 대해 공통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인 문항은 '가치있는'(평균 4.96), '노련한'(평균 4.96), '도움이 되는'(평균 4.9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우선 대중들은 전반적으로 원조전문직을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원조전문직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기대하는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리고 각 전문직이 갖는 이미지들이 기존의 서구 연구에서 나타난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인식된다. 즉 외국의 전문직 간 비교연구에서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이고 활발한 전문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타 전문직에 비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Sharpley, 1986; LeCroy and Stinson, 2004),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해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상담심리사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를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직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살피는 전문가이자 온정적이고 보호적인 이미지의 전문가(Schindler et al., 1987; Warner and Bradley, 1991)로 나타났던 외국에서의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신과 의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전문성이 높고 강한 직종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역시 더 심각한 대상을 다루는 전문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외국의 기존 연구(Schindler et al., 1987; Warner and Bradley, 1991; Farberman, 1997)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구에서 나타나는 각 원조전문직의 속성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분석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인들이 이들 원조전문직 중에서도 사회복지사를 가장 긍정적인 전문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이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역동적 발전과정에서의 타 전문직과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요소가 많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통한 직종과 측정문항 간 거리 탐색

원조전문직군 5개 직종과 일반인들의 지각수준을 나타내는 측정문항 간 상대적 거리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대응분석의 차원성(dimension)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고유값(principal inertia)과 차원별 설명분산 및 누적설명분산 결과는 <표 3>에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3> 차원성 결정을 위한 고유값 및 설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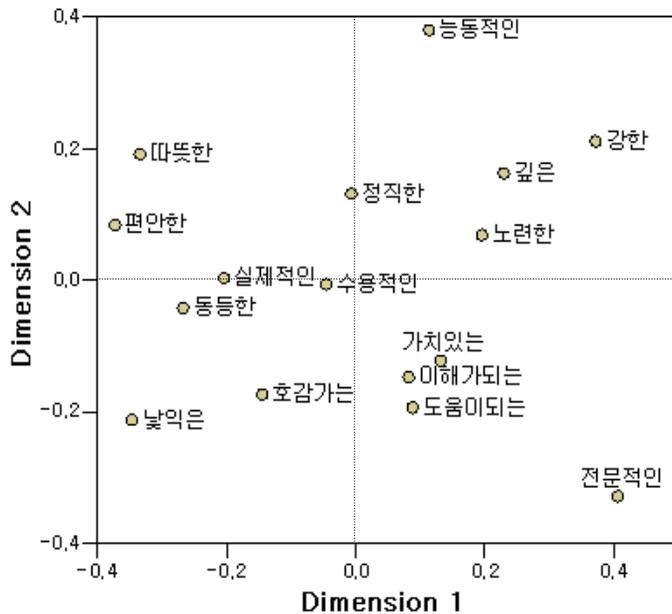
차원성	고유값	설명비율	누적설명비율
1	0.0033	0.6939	0.6939
2	0.0011	0.2322	0.9261
3	0.0003	0.0546	0.9806
4	0.0001	0.0194	1.0000
계	0.0048	1.0000	1.0000

고유값은 2차원성 이하에서 안정화를 보이며, 고유값에 대한 설명비율은 1차원성의 경우 약 69.4%, 2차원성의 경우 23.2%를 나타냄으로서 2차원 공간에서 총 9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유값과 설명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응분석의 차원으로서 2차원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과 원조전문직군 각각의 좌표값에 대한 분석 결과, 즉 상대적 거리에 따른 대응관계는 <표 4>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먼저 <표 4>의 문항 이미지별 2차원 좌표를 원점을 기준으로 사분면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문항 이미지들을 범주화 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사분면에는 ‘능동적인’, ‘강한’, ‘깊은’, ‘노련한’, 제2사분면에는 ‘따뜻한’, ‘편안한’, ‘정직한’, ‘실제적인’, 제3사분면에는 ‘동등한’, ‘수용적인’, ‘호감가는’, ‘낮익은’, 그리고 제4사분면은 ‘전문적인’, ‘도움이 되는’, ‘이해할 수 있는’, ‘가치있는’ 등의 문항으로 범주화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대응분석에서는 일차원상 양극단에 배치된 어의미분척도의 형용사 쌍 중 정적(positive)인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결과에서 제시된 문항은 정적(positive)인 이미지만이 구현되게 하였다. 실질적으로 원점좌표변환을 할 경우 잠재적인 부적(negative) 이미지도 구현할 수 있으나, 즉 제4사분면에 해당하는 형용사쌍 중 정적인 이미지들(‘전문적인’, ‘도움이 되는’, ‘이해할 수 있는’, ‘가치있는’)을 원점좌표변환 시키면 대각선에 해당하는 제2사분면에 형용사 쌍의 부적인 이미지들(‘상식적인’, ‘도움이 안되는’, ‘이해할 수 없는’, ‘가치없는’)이 위치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의 분석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정적인 이미지만이 구현되게 하였다.

<표 4> 문항 이미지별 좌표값

정적문항	좌표(차원1,차원2)		좌표(차원1,차원2)	부적문항
전문적인	(0.41, -0.33)	원점 좌표 변환	(-0.41, 0.33)	상식적인
강한	(0.37, 0.21)		(-0.37, -0.21)	약한
깊은	(0.23, 0.16)		(-0.23, -0.16)	얕은
노련한	(0.20, 0.07)		(-0.20, -0.07)	미숙한
가치있는	(0.13, -0.12)		(-0.13, 0.12)	가치없는
능동적인	(0.11, 0.38)		(-0.11, -0.38)	수동적인
도움이 되는	(0.09, -0.19)		(-0.09, 0.19)	도움이 안되는
이해할 수 있는	(0.08, -0.15)		(-0.08, 0.15)	이해할 수 없는
정직한	(-0.01, 0.13)		(0.01, -0.13)	정직하지 못한
수용적인	(-0.05, -0.01)		(0.05, 0.01)	거부적인
호감가는	(-0.14, -0.17)		(0.14, 0.17)	호감가지 않는
실제적인	(-0.20, 0.00)		(0.20, -0.00)	이론적인
동등한	(-0.27, -0.04)		(0.27, 0.04)	권위적인
따뜻한	(-0.33, 0.19)		(0.33, -0.19)	차가운
낮익은	(-0.35, -0.21)		(0.35, 0.21)	낯설은
편안한	(-0.37, 0.08)		(0.37, -0.08)	긴장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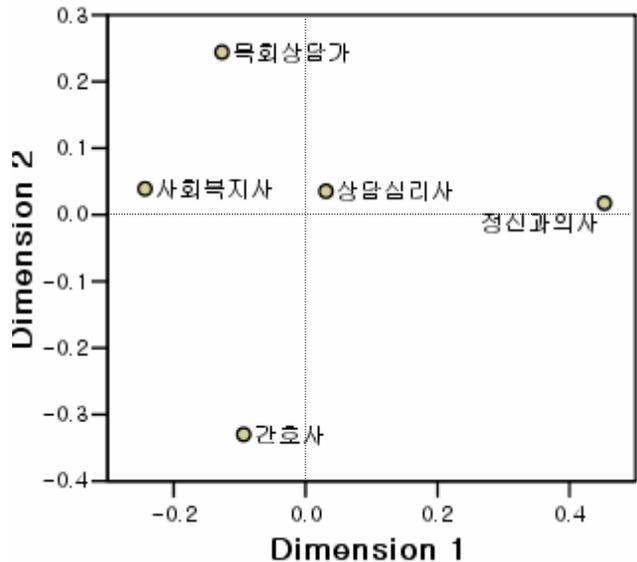
<그림 1> 문항 이미지별 산포도

한편 원조전문직군의 5개 직종을 2차원의 좌표에 위치시킬 경우, <표 5>와 <그림 2>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명력이 큰 차원1의 원점을 기준으로 할 때, '정신과의사(0.45)'가 정

적인 방향의 값이 가장 크고, '상담심리사(0.03)'의 경우에는 0에 근사하고, '사회복지사(-0.24)'는 가장 큰 부적인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원2에서는 목회상담가와 간호사가 상호 대칭적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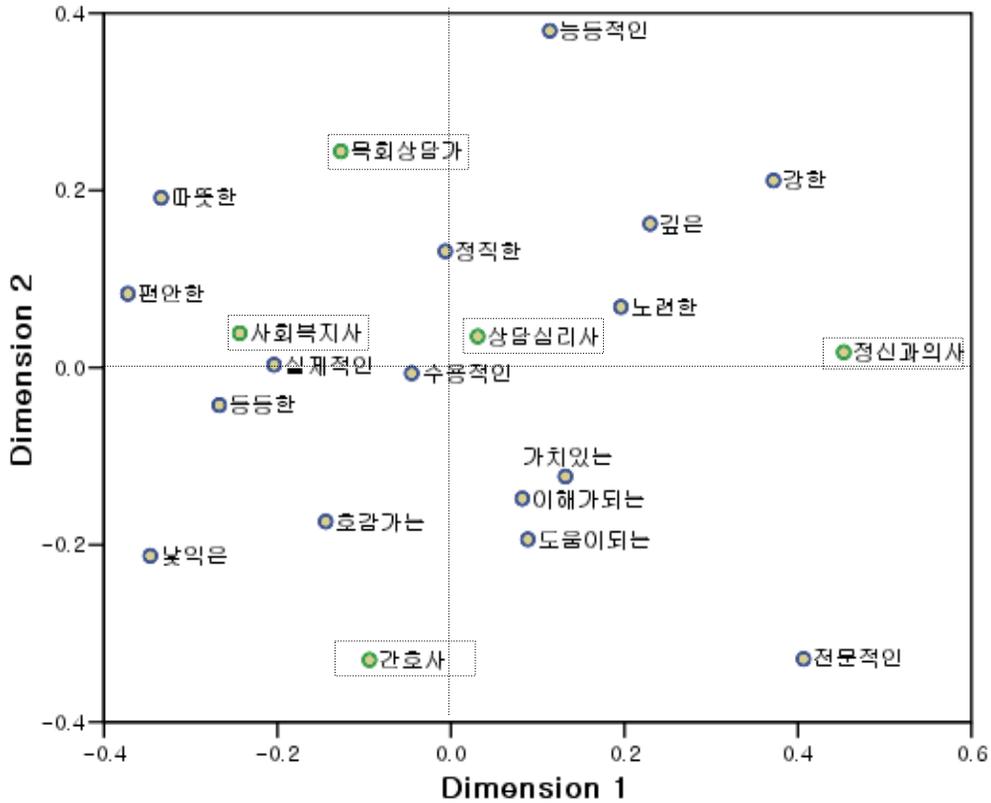
<표 5> 직종별 좌표값

문항	차원1	차원2
정신과의사	0.45	0.02
상담심리사	0.03	0.04
간호사	-0.09	-0.33
목회상담가	-0.13	0.24
사회복지사	-0.24	0.04



<그림 2> 직종 산포도

다음으로 16개 문항과 직종 각각의 좌표값을 2차원상에 통합시킬 때,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1사분면에 해당하는 문항들('능동적인', '강한', '깊은', '노련한')에는 정신과의사와 상담심리사 직종이 속할 수 있고, 제2사분면('따뜻한', '편안한', '정직한', '실제적인')에는 사회복지사와 목회상담가 직종이 속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3사분면('동등한', '수용적인', '호감가는', '낮익은')에는 간호사가 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제1사분면에 위치한 정신과의사의 경우 '강한'의 이미지가 가장 근접하고, 상담심리사의 경우에는 '노련한'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사분면의 사회복지사는 '실제적인' 및 '편안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목회상담가의 경우에는 '정직한'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사분면의 간호사의 경우에는 '호감가는' 및 '낮익은'이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문항 및 직종 대응분석 결과

이 분석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복지사를 표현하는 이미지들 중, 전문성에 해당되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신과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상담심리사에 비해서 ‘전문적인’의 이미지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결과라 하겠다. 사회복지사가 실제성과 편안함 등의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측면에서의 이미지가 미약한 것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다(Condie et al., 1978; Kaufman and Raymond, 1995-1996; Fall et al., 2000).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헌신해온 분야에 따라 전문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현상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미지 개선노력이 상당한 결실을 보일 수 있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Gibelman, 2004; LeCroy and Stinson, 2004),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다각적인 논의와 모색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사회복지사와 타 원조전문직에 대한 인식 차이 검증

앞에서 살펴본 각 직종별 이미지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통계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이외의 원조전문직 간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기 위해 각 원조전문직의

합산점수에 대한 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post-hoc test)을 Dunnett t-test를 통해 실행해 보았다. 이러한 방식의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6> 사회복지사와 타 원조전문직간 평균차이검증

비교집단(I)	참조집단(J)	평균차이(I-J)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0707
목회상담가	사회복지사	-.3287**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2092**
간호사	사회복지사	-.1837**

* p<0.05, ** p<0.01

사회복지사와 타원조전문직 간 평균차이검증 결과, 사회복지사와 상담심리사간에는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변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에서 시행한 대응분석 결과에서도 시각적으로 인지되어지는 바인데, 이는 전반적인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심리사간의 구별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비록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대표적인 원조전문직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와 같이 타 전문직과의 구분이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이미지 보완 과제를 찾아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Webb and Speer, 1986), 점차 원조전문직종들 간 역할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현상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와 상담심리사와의 유사성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대 사회적 이미지 구축 노력과 더불어 사회복지사가 전문성 등의 실제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보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제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4)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이미지 차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요인구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즉 성별, 종교, 학력, 경험, 연령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표 5>와 같이 MANOVA를 통해 주효과의 유의도를 평가해 보았다(<표 7>참조). 분석결과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성별이 사회복지사의 이미지에 대해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 인구통계학 변수의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대한 주효과 유의도 평가

변수		값	F
연령	Pillai's Trace	.028	1.313
	Wilks' Lambda	.973	1.313
	Hotelling's Trace	.028	1.312
	Roy's Largest Root	.014	2.608
성별	Pillai's Trace	.043	12.783**
	Wilks' Lambda	.957	12.783**
	Hotelling's Trace	.045	12.783**
	Roy's Largest Root	.045	12.783**
종교	Pillai's Trace	.018	1.726
	Wilks' Lambda	.982	1.726
	Hotelling's Trace	.018	1.725
	Roy's Largest Root	.011	2.989
학력	Pillai's Trace	.016	.893
	Wilks' Lambda	.984	.893
	Hotelling's Trace	.016	.893
	Roy's Largest Root	.009	2.036
경험	Pillai's Trace	.022	1.604
	Wilks' Lambda	.978	1.608
	Hotelling's Trace	.023	1.611
	Roy's Largest Root	.017	4.949

* p<0.05, ** p<0.01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요인별로 성별의 주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그 결과는 <표 8>에서 제기되는 바와 같다. 다음 MANOVA 결과표는 집단간설계(between-subject design)에 기초한 결과표로서 수정된 유의수준(modified α')인 0.01을 검증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연령, 종교, 학력, 전문직에 대한 경험 여부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미지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학력이 전문직이나 관련 학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O'leary et al., 2000), 유의한 차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는데(강철희, 2005),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의미 있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에 대한 경험이나 그 전문직에 속한 사람을 아는 여부 역시 인식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별로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Condie et al., 1978; 강철희, 2005),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인구통계학 변수의 사회복지사의 이미지에 대한 주효과 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연령	유용성	19.134	6	3.189	1.136
	친숙성	29.427	6	4.904	1.713
	신뢰성	8.089	6	1.348	.672
	전문성	23.051	6	3.842	1.732
성별	유용성	126.074	1	126.074	44.927**
	친숙성	78.952	1	78.952	27.571**
	신뢰성	62.144	1	62.144	30.964**
	전문성	9.826	1	9.826	4.430
종교	유용성	24.800	3	8.267	2.946
	친숙성	19.712	3	6.571	2.295
	신뢰성	6.457	3	2.152	1.072
	전문성	21.142	3	7.047	3.177
학력	유용성	12.599	5	2.520	.898
	친숙성	16.070	5	3.214	1.122
	신뢰성	10.032	5	2.006	.905
	전문성	26.076	4	6.519	2.323
경험	유용성	7.200	4	1.800	.629
	친숙성	11.601	4	2.900	1.445
	신뢰성	2.956	4	.739	.333
	전문성	17.324	6	2.887	1.295

** p<0.01

기존 연구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소로 보고된 성별에 의한 인식차이(O'leary et al., 2000; Condie et al., 1978; 강철희, 2005; 유성경, 2005)는 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원조전문직이나 관련 학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복지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아닌 이미지라는 차원에서 측정되었다는 것과 관련된 것인지, 표집 대상자들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이것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중이미지에 대한 심화된 탐색을 지속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이미지의 현실을 보다 다각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본다.

7. 결론 및 제언

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사회복지사의 위상정립'은 한국 사회복지계의 지속적인 화두가 되어 왔다.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원조전문가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의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위상정립을 위한 실제적 노력은 사회복지사의 입지 및 사회적 인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점차 다각화되어져 가는 인간봉사 영역에서의 다양한 욕구와 함께 관련 학문 분야 및 원조전문직의 신속한 대응 노력은 원조전문직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를 형성시키고 있고, 이는 사회복지직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변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직, 즉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 연구는 현실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앞으로 사회복지직의 방향 설정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판단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분석된 한국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현주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기술적인 통계분석 결과, 5개 원조전문직 중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문직이 사회복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따뜻한’, ‘편안한’, ‘동등한’, ‘가치있는’, ‘수용적인’, ‘실제적인’, ‘정직한’, ‘능동적인’, ‘호감이 가는’ 등 9가지 이미지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응분석을 통해 각각의 이미지를 4분면으로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사의 특징은 두 이미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안한 원조전문가 그리고 실제적인 원조전문가의 이미지로 부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줄곧 사회복지사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어온 전문성의 면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정신과의사, 간호사, 상담심리사에 비해 상대적인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즉 전문성 이미지에서는 미약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산분석을 통해 타전문직과의 차별성을 검증한 결과, 종합적인 이미지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사는 상담심리사와 변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정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나 전문성과 같은 다른 부분에서는 상담심리사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서, 결국 전반적인 인식 면에서 볼 때는 크게 차별화된 이미지 상의 차이를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MANOVA를 통해 검증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복지사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종교, 학력,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험 등은 인식에 별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원조전문인으로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그 입지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전문성 면에서는 관련 전문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표집이 무작위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이미지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다소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논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 중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라고 본다. 전문성의 문제는 비단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는 학문과의 연계 속에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 연구(강철희, 2005)에 따르면, 사회복지학의 공헌도, 중요성, 유망도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전문성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의 과학적 지식과 기능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회변동에 대한 대응노력이 강화되

면서 학문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직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문제는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한 축은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과제인 사회복지학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학의 지속적인 자기 성찰 및 학문적 역량강화의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한 축은 교육제도에서부터 시작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우선 전문인을 양성해 내는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부분이 담보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사회복지사의 교육과정은 질적인 차원에서의 구성 측면에서 많은 제한성을 갖는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즉, 과다한 학생수와 교육 인프라부족에 따른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부실화, 자격증 획득과 관련된 교과목 규정제도의 불충분성, 학제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내용 부재, 유사한 전공 명칭 사용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등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기영·최명민, 2005). 결국 이러한 사회복지 인력 개발 차원에서의 질적 체계 형성의 부족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제도 폐지,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증제 도입, 사회복지학 교과목 내용과 최소학점 규정 등의 개선방안(김범수 외, 2006)에 대한 엄밀한 분석 및 체계적 논의와 함께 문제해결의 방안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크다고 본다.

교육과정에서의 과제와 더불어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변화노력 역시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 사회복지사에게 부족한 것은 노련함이었다. Hasenfeld(1983)가 주장하듯이, 사회복지사는 인간과 환경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식축적 측면에서 원천적 제한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과 지혜 등에 기반한 실천의 이념(practice ideology)을 일정부분 키우면서 생존하는 전문인일 수밖에 없다. 즉 노련함은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인데, 이는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경력과 경험이 풍부해야하고, 이를 위한 현장에서의 교육과 훈련 및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직의 문제가 크고 동시에 직원 훈련 및 교육 등이 미약한 현재의 사회복지 현장의 상황은 사회복지사의 노련함을 낮출 수준에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전문성이 미약한 이미지를 갖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인식을 고착시킬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복지사가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해 내었듯이, 비록 다소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회복지 현장 자체도 인력개발체계 강화 및 수퍼비전 체제 확립 등의 노력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노련함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사 이미지 형성의 노력을 통한 위상 제고가 필요하고 관련된 체계적 연구 노력을 통한 현실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에서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탐색하고 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대별 TV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의 대중매체에 그려진 사회복지사의 이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진행시켜 왔다(Kaufman and Raymond, 1995-1996; Tower, 2000; Freeman and Valentine, 2004). 또한 본 연구와 같이 다른 전문원조직과의 비교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과제 및 대안들을 모색해 보려는 연구들을 지속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차원에서 사회에 비취진 사회복지사의 위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기반으로, 미디어 활용 방안 등 대사회적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법들을 활용하여 연구하면서 사회복지사의 객관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대안적 노력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반적으로 볼 때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성으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시킬 수 없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원래 임무를 지속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Withorn, 1984; Specht and Coutney, 1994; 김인숙, 2004). 그리고 전문적 역량의 강화 및 사회복지사 고유의 사명 실천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미지 및 위상이 보다 제고되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철희. 2005. "사회복지학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 : 147-175.
- 김계현. 1995.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규수. 1992. 의료사회사업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범수·허준수·이기영·최명민. 2006.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제 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 9-39.
- 김성희. 1999.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와 다른 전문가의 업무 및 역할충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숙. 2004. "사회복지실천학문의 정체성 :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사회복지학 정체성의 위기와 도전Ⅱ』, 200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33-53.
- 박종우. 1994. 사회사업가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성경. 2005. "한국 대학생의 상담, 상담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치료』 17(3) : 617-632.
- 이기영·최명민. 2005. "사회복지 전문인력 개발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2(1) : 1-52.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 Barlow, W. C. 1963. "Public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Welfare, Cleveland, Ohio : May.
- Benjamin, T. L. 1986. "Why Don't They Understand Us? : A History of Psychology's Public Image", *American Psychology*, 41(9) : 941-946.
- Condie, C. D., J. A. Hanson, N. E. Lang, D. K. Moss, and R. A. Kane. 1978. "How the public views social work," *Social Work* 23 : 47-53.
- Cowles, L. A. and M. J. Lefcowits. 1992. "Interdisciplinary Expectation of the Medical Social Worker in the Hospital Setting." *Health and Social Work* 17(1) : 57-65.
- Fall, K. A., J. E. Levitov, M. Jennings, and S. Eberts. 2000. "The public perception of mental

- profession: An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2 : 122-134.
- Farberman, R. K. 1997. "Public attitudes about psychologists and mental health: Research guide to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c education campaig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8 : 128-136.
- Freeman, L. M. and P. D. Valentine. 2004. "Through the Eyes of Hollywood : Images of Social Workers in Film", *Social Work* 49(2) : 151-161.
- Gibelman, M. 2004. "Television and the Public Image of Social Workers : Portrayal of Betrayal?" *Social Work* 49(2) : 331-334.
- Hasendfeld, Y. 1983. *Human Service Organizations*, Prentice-Hall.
- Humphreys, K. 1996. "Clinical Psychologists as Psychotherapists : History, Future, and Alternatives." *American Psychologist* 51(3) : 190-197.
- Kadushin, A. 1958. "Prestige of social work-Facts and factors," *Social Work* 3 : 37-40.
- _____. 1978. "Social Work and the American Family : Then and Now 1920-1978."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49 : 3-24.
- Kadushin, G. 1996. "Elderly Hospitalized Patients' Perceptions of the Interaction with the Social Worker during discharge Planning." *Social Work in Health Care* 23(1) : 1-21.
- Kaufman, A. V., and G. T. Raymond. 1995-1996. "Public perception of social workers: A survey of knowledge and attitudes", *Aret* 20 : 24-35.
- LeCroy, C. W., and E. L. Stinson. 2004. "The public's perception of social work: Is it what we think it is?," *Social Work* 49 : 164-174.
- O'Leary, E., R. Page, and C. Kaczmarek. 2000. "A Comparison of Perceptions of Counselling i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3(4) : 391-397.
- Osgood, C. E., G. J. Suci, and P. H. Tannenbaum.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chindler, F., M. R. Berren, M. T. Hannah, A. Beigel, and J. M. Santiago. 1987. "How the public perceives psychiatrists, psychologists, nonpsychiatric physicians, and members of the clerg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8 : 371-376.
- Sharpley, C. F. 1986. "Public perceptions of four mental health professions: A survey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 psychologists, psychiatrists, social workers and counselors." *Australian Psychologist* 21 : 7-67.
- Specht, H. and Coutney, M. 1994. *Unfaithful Angels : How Social Work Has Abandoned its Mission*, Free Press.
- Tower, K. 2000. "In Our Own Image : Shaping Attitudes about Social Work through Television Productio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6(3) : 575-585.
- Trautt, G. M., and L. M. Bloom. 1982. "Therapeutic factors in psychotherapy: The effects of fee and title on credibility and attrac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 274-279.
- Walkowitz, D. J. 1990. "The making of a feminine professional identity : Social Workers on the 1920s." *American Historical Review* 95 : 1051-1075.
- Warner, L. D., and R. J. Bradley. 1991. "Undergraduate psychology students' views of counselors, psychiatrists, and psychologists : a challenge to academic psychologists."

- Professional Psychology : Research and Practice* 22 : 138-140.
- Webb, A. R. and J. R. Speer. 1986. "Prototype of a profession : Psychology's public image." *Professional Psychology : Research and Practice* 17 : 5-9.
- Withorn, A. 1984. *Serving the People : Social Services and Social Change*.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Wood, W., M. Jones, and L. Benjamin. 1986. "Surveying Psychology's Public Image., " *American Psychologist* 4 : 947-953.

A Comparative Study of the Public's Image on Helping Professions : Comparison between Social Welfare Professional and Other Professionals

Kang, Chul-Hee
(Yonsei University)

Choi, Myung-Min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and describe the public's image on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in the comparison with other helping professionals. Using a sample (n=1,156) collected from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and citizens, this study comparatively examines the public's image on five helping professionals such as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psychiatrists, clinical psychologists, nurses, and pastoral counselors. In measuring the public's image, this study uses a semantic differential scale that is composed of 16 pairs of adjective words. In overall, among five helping professionals,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is the most positively recognized; thus, its total score is the highest. By using correspondence analysis,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belong to the second quadrant that includes "practical" and "comfortable". As have discussed in the previous research, however, the analysis reveals that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expertise is not highly evaluated. On the other hand, ANOVA shows that unlik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nd other helping professionals,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nd clinical psychologists. Finally, MANOVA shows that except for gender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do not make any differences in the public's image on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s diverse directions and measures to strengthen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competencies including expertise and promote the public's imag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Key words : social worker, social welfare profession, helping professions, public's image, recognition, professionals' expertise

[논문접수일 2006. 9. 18. 게재확정일 2006. 11. 16.]